

경제동향

■ 요약

■ 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■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■ 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■ 물가 소비자물가/ 신선식품

장윤선 연구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

■ 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■ 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
■ 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
정의영 연구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

| 요·약 | 1월 서울의 경제동향

생 산

- 서울의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.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6% 감소하여 생산 부진
- 1월 제조업 출하·재고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.9%, 3.1% 증가

소 비

-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590억 원으로 전국(6조1,786억 원)의 33.3% 차지
- 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.8% 감소,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.5% 감소하여 소비 부진

고 용

-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(0.2%) 증가
-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9.9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감소, 실업률은 4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5%p 상승하여 고용 사정 조금 더 악화

물 가

- 201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2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2%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
- 전기·수도·가스(-3.1%), 신선식품지수(-2.5%)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

부 동 산

-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와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발생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상승한 100.2 기록
-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33% 상승한 110.6 기록. 이는 전세 매물의 부족, 재건축 이주 시작, 방학으로 인한 학군 수요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

금 융

- 서울의 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96조 5,103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79% 증가
- 서울의 1월 가계대출은 189조 6,941억 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
-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는 2,492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.3% 증가, 부도법인 수는 21개로 전년 동월 대비 19.2% 감소하여 신설/부도법인 비율 상승
- 서울의 1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 전월 대비 각각 31.7%, 22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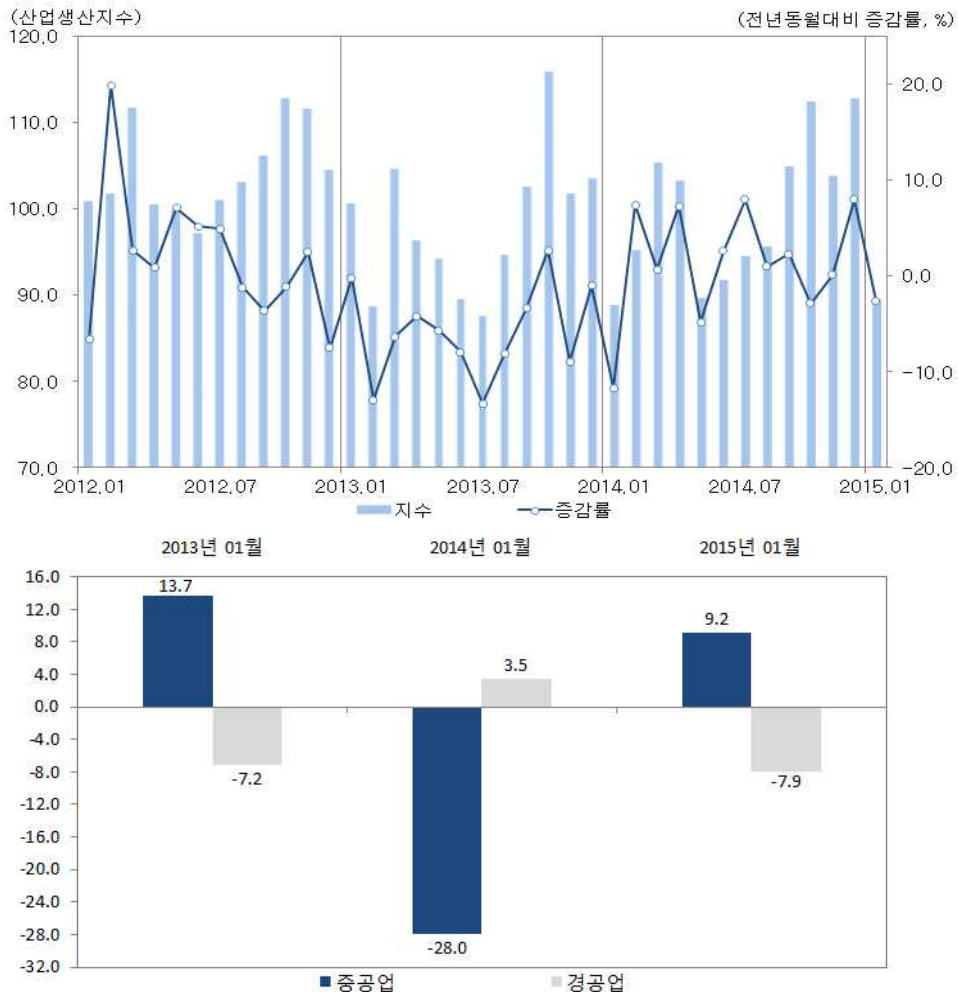
수 출 입

- 서울의 1월 수출은 47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.8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1월 수입은 128.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6.3% 증가, 품목별로는 원유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| 생 · 산 |

■ 서울의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.6(2010=10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6% 감소

-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9.2% 증가, 경공업은 7.9% 감소
-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의료정밀과학(40.0%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25.0%), 인쇄 및 기록매체(10.2%) 등은 증가, 기타제품(-24.1%), 기계장비(-18.0%), 의복 및 모피(-10.4%) 등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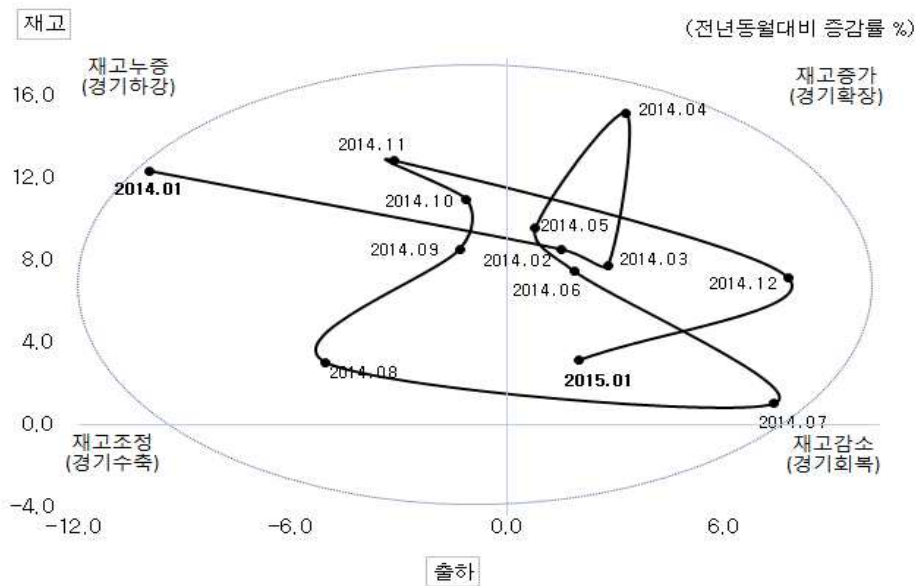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■ 서울의 1월 제조업 출하,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1월 출하지수는 93.4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9% 증가
- 서울의 1월 재고지수는 125.9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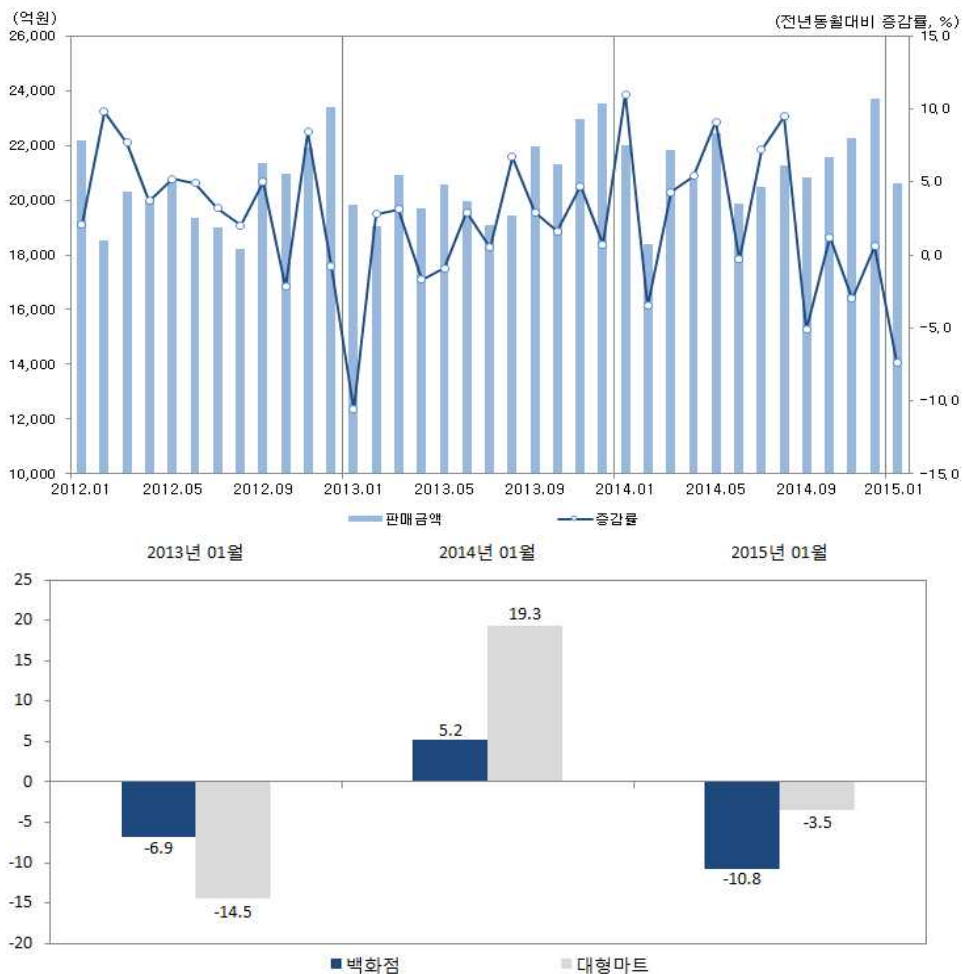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출하 · 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■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.6% 감소

-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590억 원으로 전국(6조 1,786억 원)의 33.3%
- 백화점 판매액은 1조 432억 원으로 전국(2조 4,205억 원)의 43.1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58억 원으로 전국(3조 7,581억 원)의 27.0%를 차지
-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.7로 전년 동월 대비 10.6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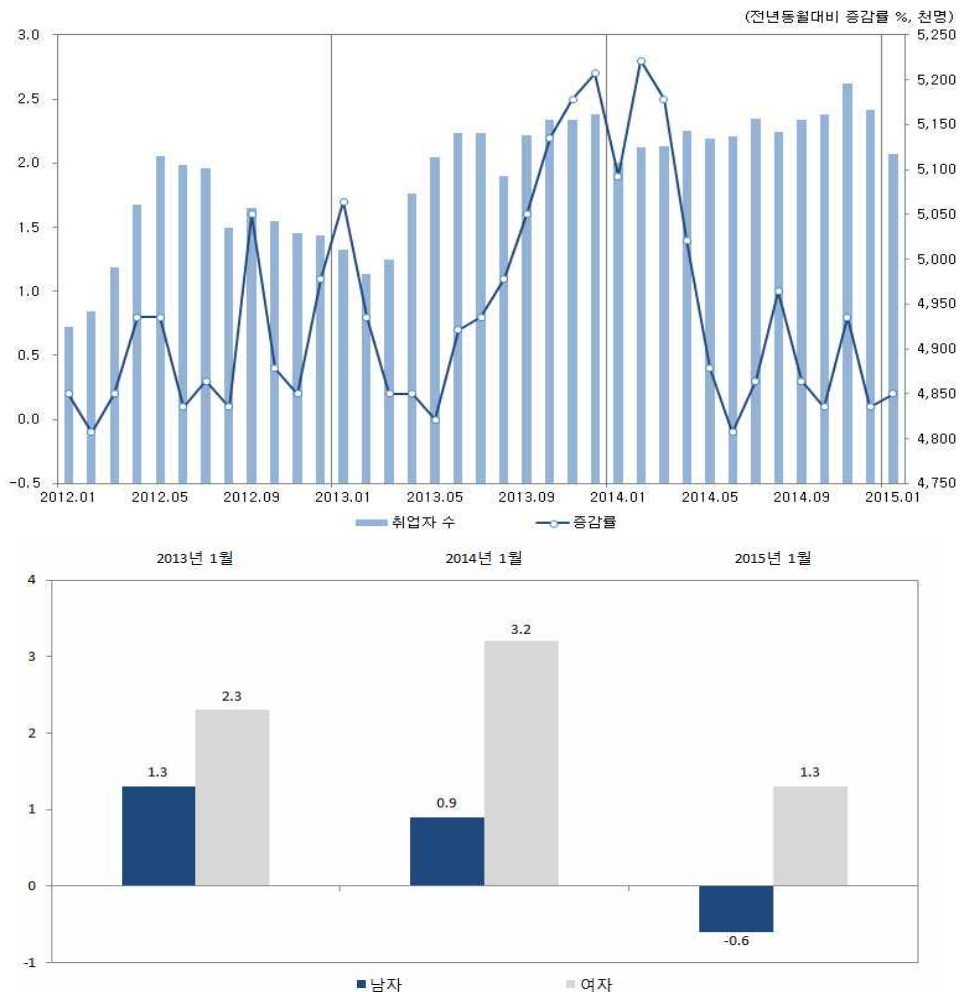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| 취·업·자 |

■ 서울의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2% 증가

-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(0.2%)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 명(-0.6%p) 감소하고, 여자는 228만 3천 명으로 2만 9천 명(1.3%) 증가
- 산업별로 보면, 도소매·숙박음식업이 6만 2천 명(4.4%), 건설업이 2만 8천 명(9.6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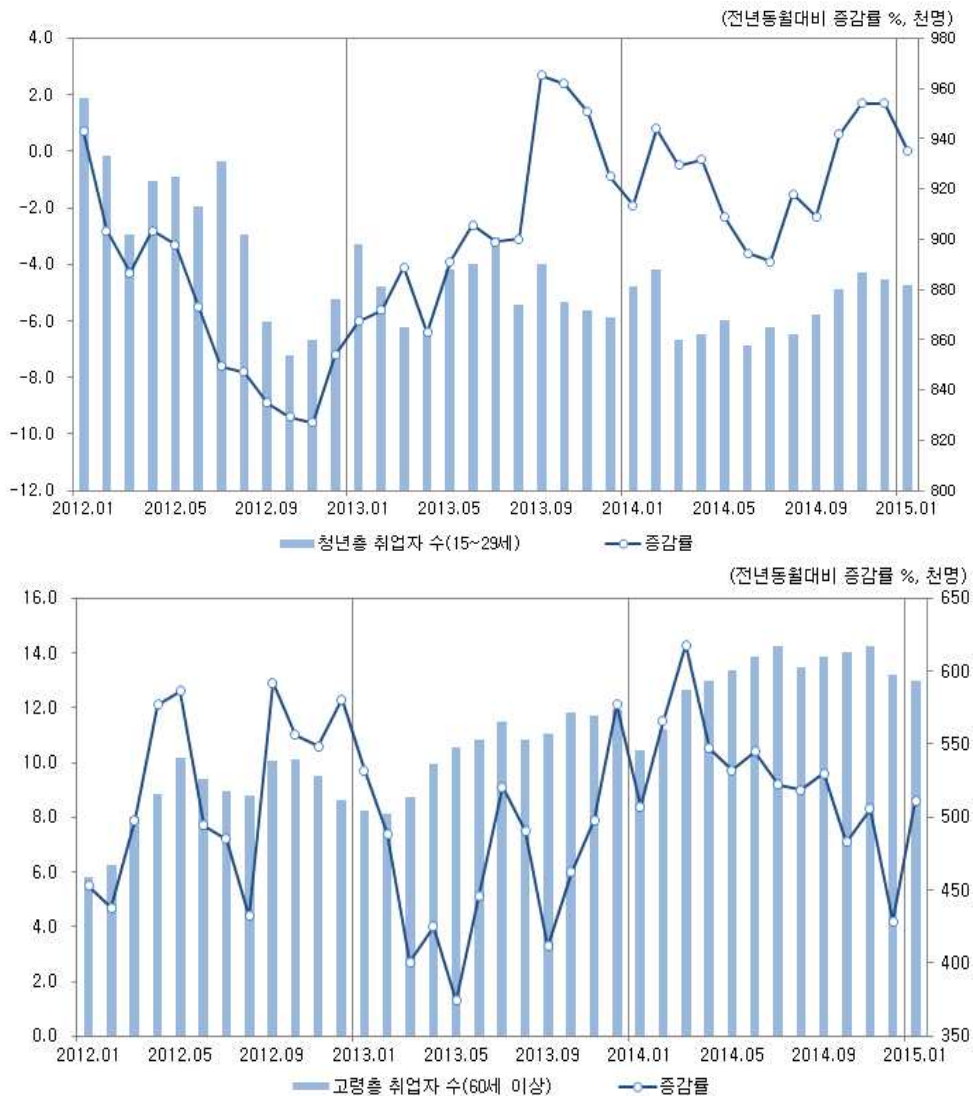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■ 서울의 1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

- 서울의 1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
- 서울의 1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5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.6% 증가해 지속적 증가세 시현
- 반면 최근 3개월의 고령층 취업자 수는 11월 61만 7천 명에서 1월 59만 3천 명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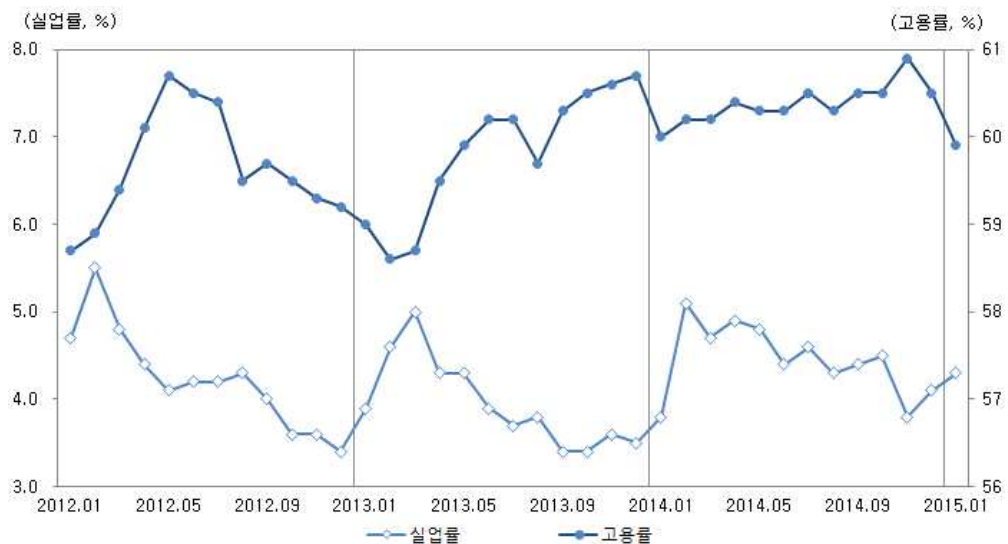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- 서울의 1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, 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
 -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9.9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감소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감소, 여자는 51.3%로 0.4%p 증가
 - 2014년 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58.7%)보다 1.2%p 높은 수준
- 서울의 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12월 실업자는 2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(14.8%) 증가
 - 실업률은 4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5%p 상승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, 여자는 4.0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상승
 - 2015년 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8%)에 비하여 0.5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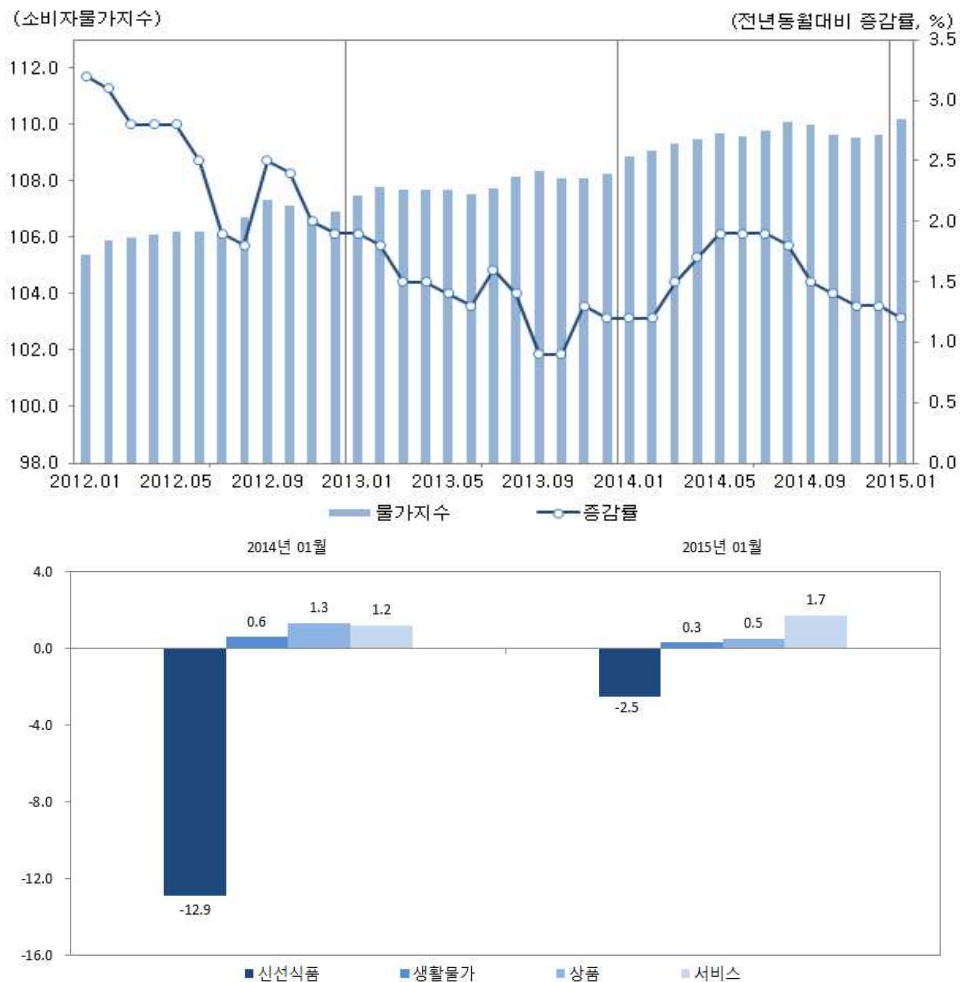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 · 가 |

■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2% 상승

- 201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2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2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전기·수도·가스(-3.1%), 신선식품지수(-2.5%)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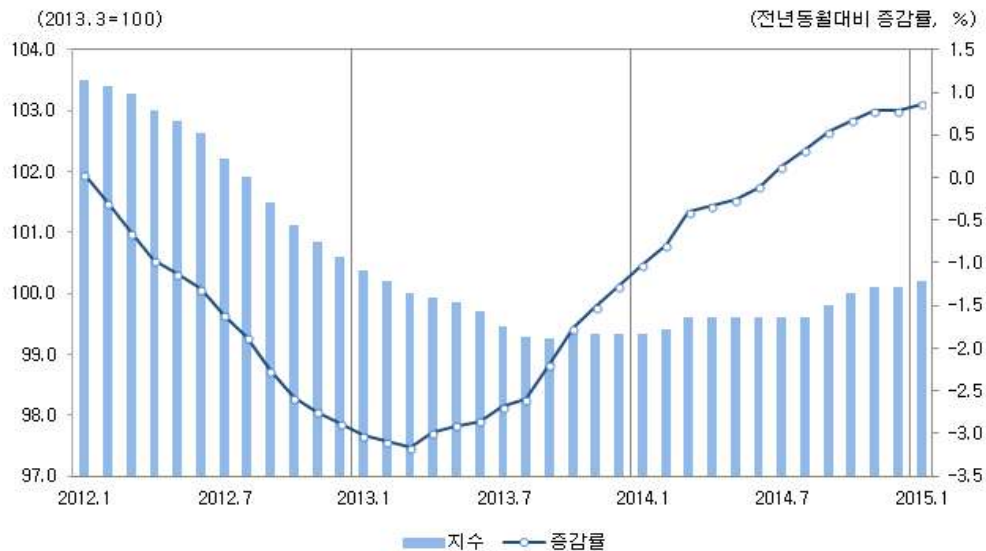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■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2015년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2로 전월 대비 0.05% 상승하였으며, 전월 대비 0.06% 상승한 강남지역은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가, 전월 대비 0.05% 상승한 강북지역은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
- 주요 상승지역: 종로구(0.34%), 강남구(0.19%), 강동구(0.18%), 중구(0.15%)
- 주요 하락지역: 용산구 (-0.16%)

■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.8로 전월 대비 0.13% 상승함. 이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발생 및 부동산 3법 국회통과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임. 5개 광역시, 수도권,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28%, 0.09%, 0.07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■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, 매매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평당 평균 매매가격(1,664만 원), 매매거래건수(6,849건)는 각각 전월 대비 0.41%, 2.6% 상승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■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2015년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0.6으로 전월 대비 0.38% 상승함. 전체적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가운데, 재건축 이주 시작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한 강동구(0.82%)와 재건축 이주, 직장인 수요, 방학을 맞이한 학군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서초구(0.76%)의 상승이 주목할 만함. 강남(0.41%), 강북지역(0.35%) 모두 전월 대비 상승
- 주요 상승지역: 강동구 (0.82%), 서초구 (0.76%), 성북구(0.62%), 종로구(0.59%)

■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26% 상승한 109.0이며 이는 월세 선호 및 전세 매물 부족의 영향임. 5개 광역시, 수도권,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27%, 0.33%, 0.06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■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전세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평당 전세가격(1,064만 원), 전세거래건수(10,330건)는 각각 전월 대비 1.3% 증가, 16.1% 감소
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■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596조 5,103억 원)은 전월 대비 0.79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498조 3,994억 원)과 비예금은행(98조 1,109억 원)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5% 증가, 6.6% 감소

■ 1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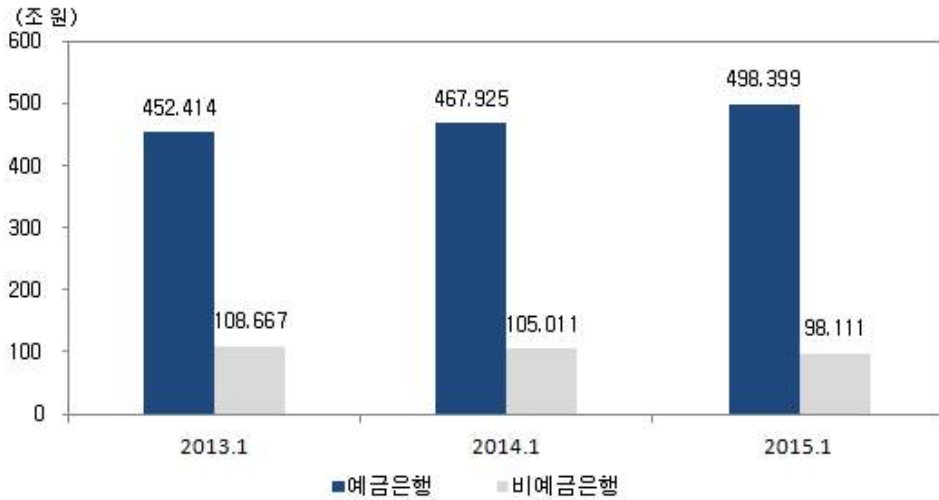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638조 7,313억 원)은 전월 대비 0.62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 잔액은 1,258조 3,009억 원이며 비예금은행 잔액은 380조 4,304억 원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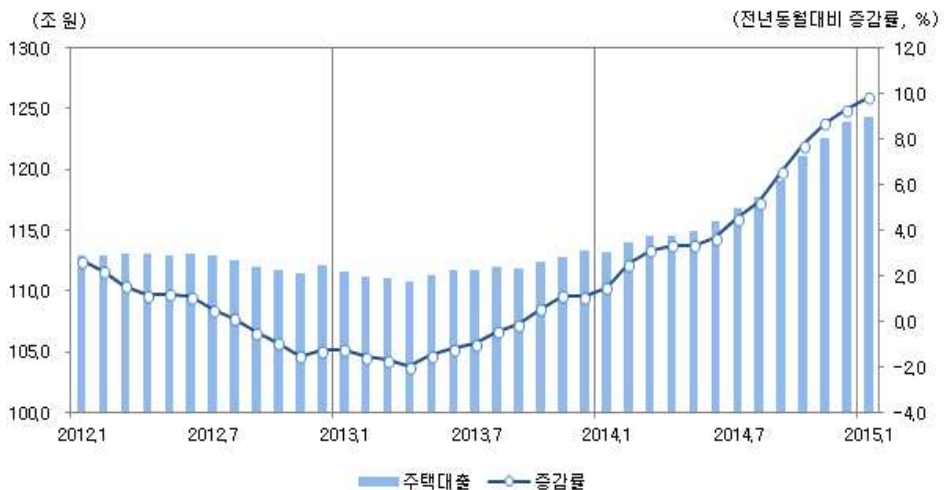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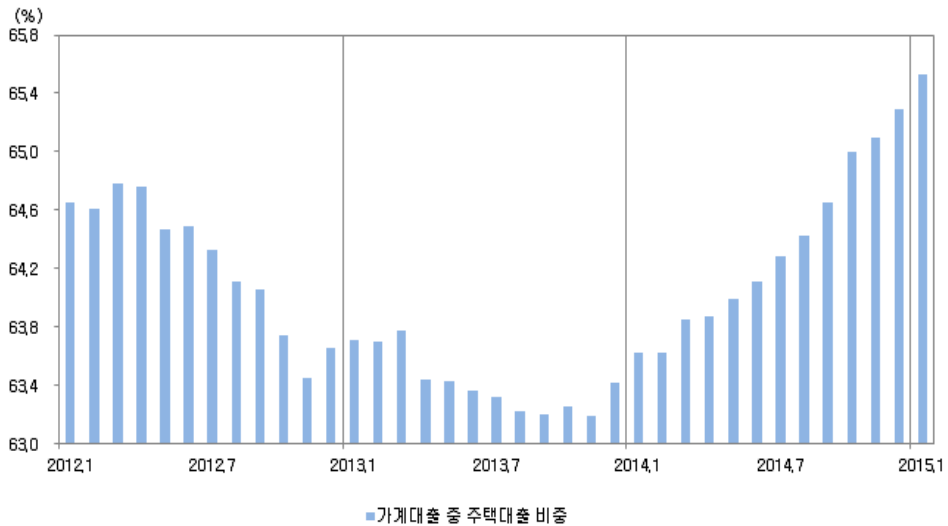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189조 6,941억 원)은 전월(189조 6,801억 원) 대비 소폭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24조 3,163억 원)은 전월 대비 0.4%, 전년 동월 대비 9.8%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5.5%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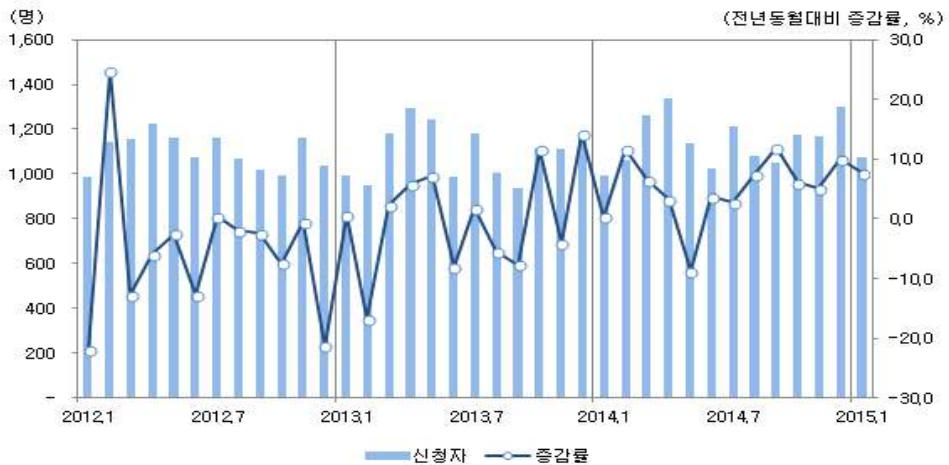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개인파산 신청자(1,072명)는 전월(1,302명) 대비 감소
-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 처리 건수(21건)는 전월과 동일, 전년 동월 대비 19건 감소하였으며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은 1.8%



자료 :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| 신·설·및·부·도·법·인 |

■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492개로 전월 대비 1.1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1.3% 증가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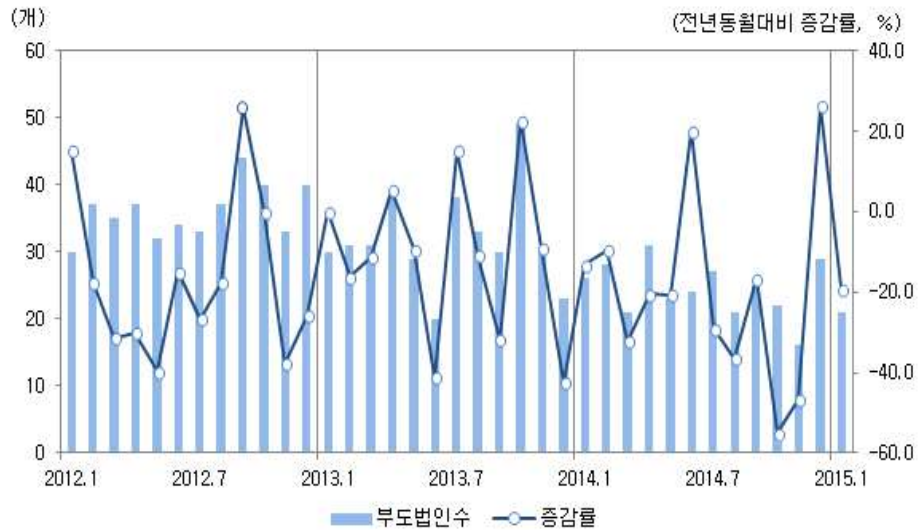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■ 서울의 1월 부도법인 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1월 부도법인 수는 21개로 전월(29개) 대비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9.2% 감소
-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7개, 서비스업 12개, 건설업 2개씩으로 전월 대비 각각 0개, 3개, 3개 감소하였으며, 전년 동월 대비 16.7% 증가, 7.7% 감소, 71.4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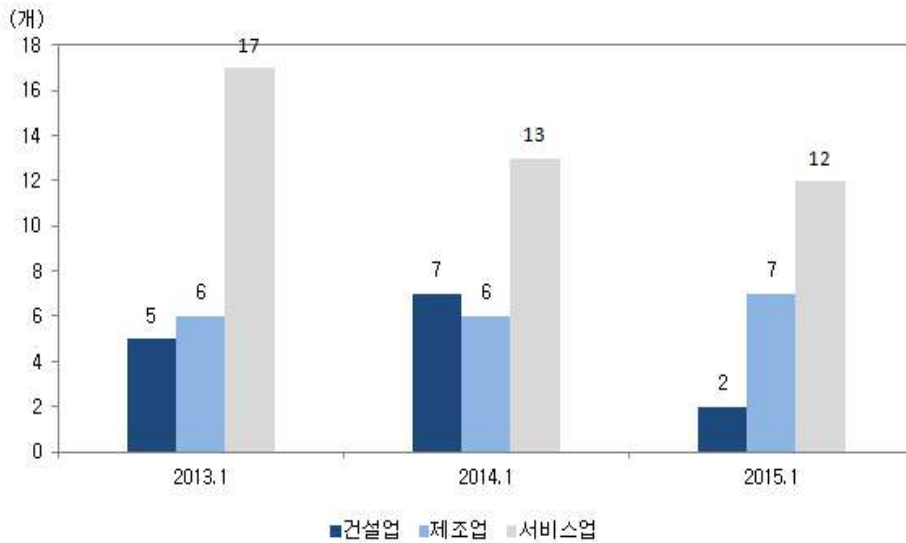
■ 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보합, 신설 / 부도법인 비율은 전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1%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며, 서울의 신설법인 / 부도법인 비율은 118.7로 전월 86.9 대비 상승
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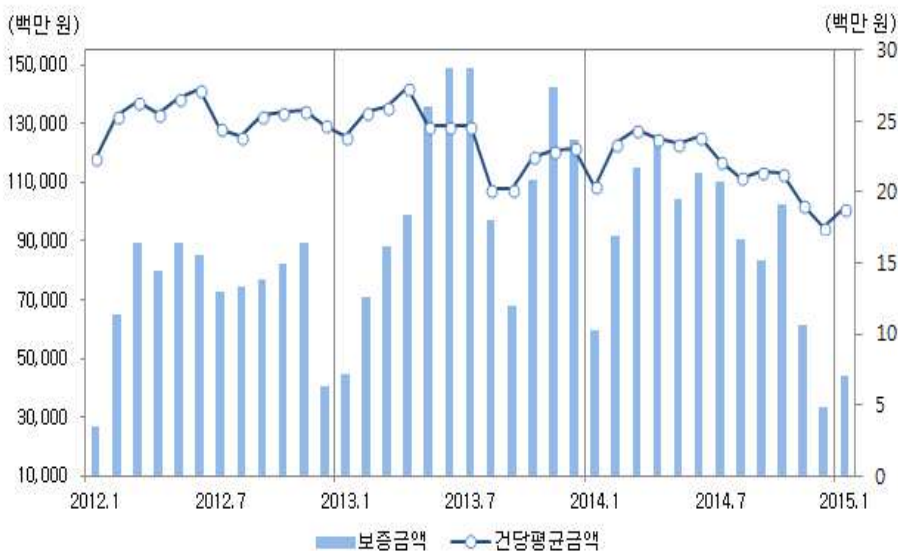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어음부도율과 신설 / 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 |

■ 서울의 1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44,091백만 원 / 2,337건
-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31.7%, 22.3% 증가, 건당 평균 지원 금액(18.9백만 원)은 전월 대비 8.0% 증가
-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6.1%, 20.2% 감소,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7.4%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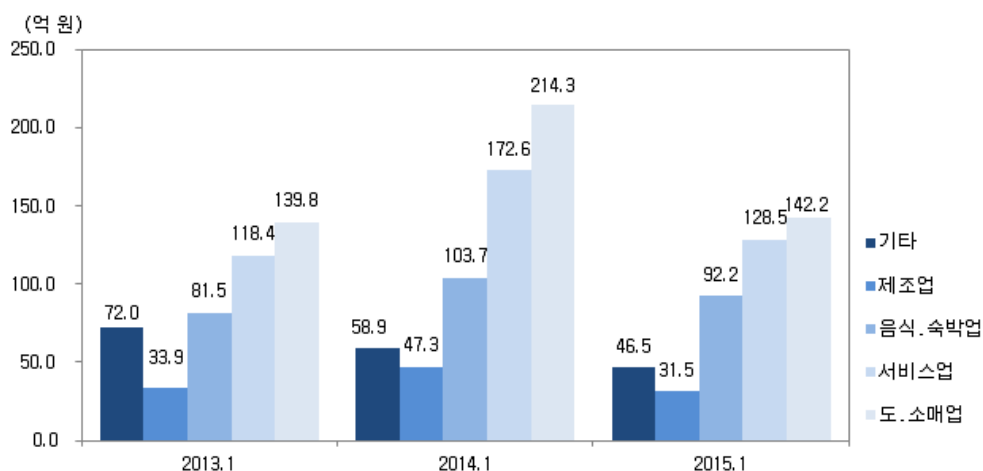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

■ 도소매업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증가,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, 제조업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

-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42.2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.6%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기준 보증지원비중은 전월 대비 0.5%p 하락한 32.3%
-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31.5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.4%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기준 보증지원비중은 7.1%로 전월 대비 3.5%p 감소
- 도소매업으로의 보증지원건수는 709건, 제조업으로의 보증지원건수는 149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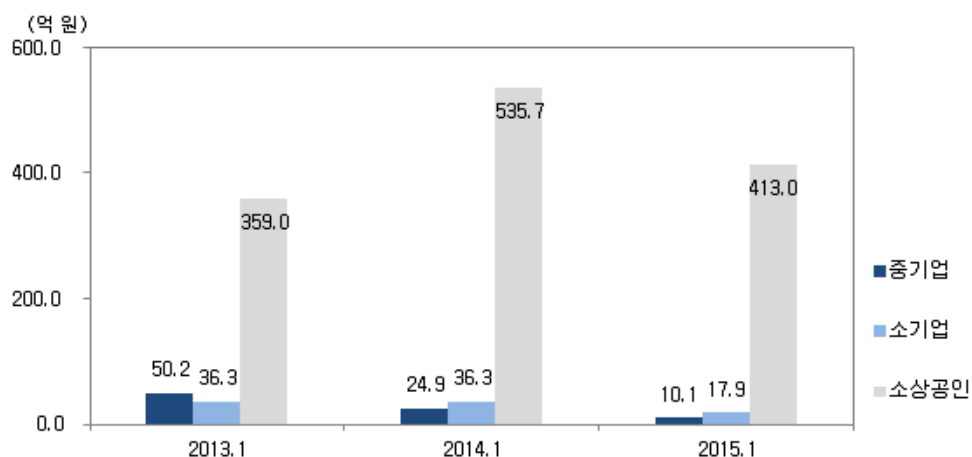
■ 기업규모별 보증금액은 전 기업규모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.9% 감소한 413백만 원으로, 공급금액 기준 전체보증금액의 93.7%를 차지하고, 보증지원건수는 2,294건
-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.6% 감소한 17.9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체보증금액의 4.1%를 차지하고, 보증지원건수는 36건
-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9.4% 감소한 10.1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체보증금액의 2.3%를 차지하고, 보증지원건수는 7건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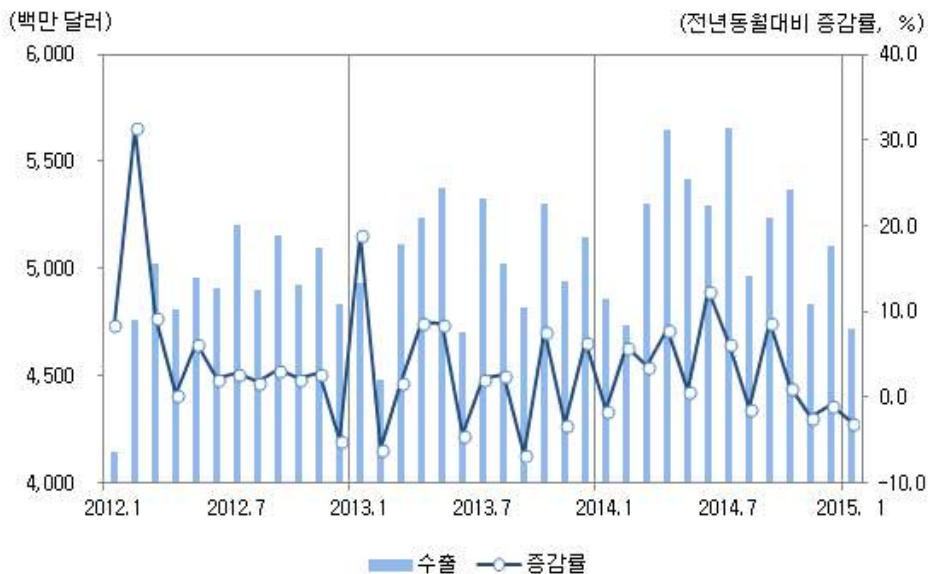
| 수 · 출 · 입 |

■ 서울의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수출은 47.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.8% 감소하였고, 수입은 128.0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6.3% 증가
- 전국의 수출은 451.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.9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97.9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.2% 감소

■ 서울의 1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507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합성수지, 반도체, 편직물, 고무제품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로 인하여 원유가 1,321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도체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, 자동차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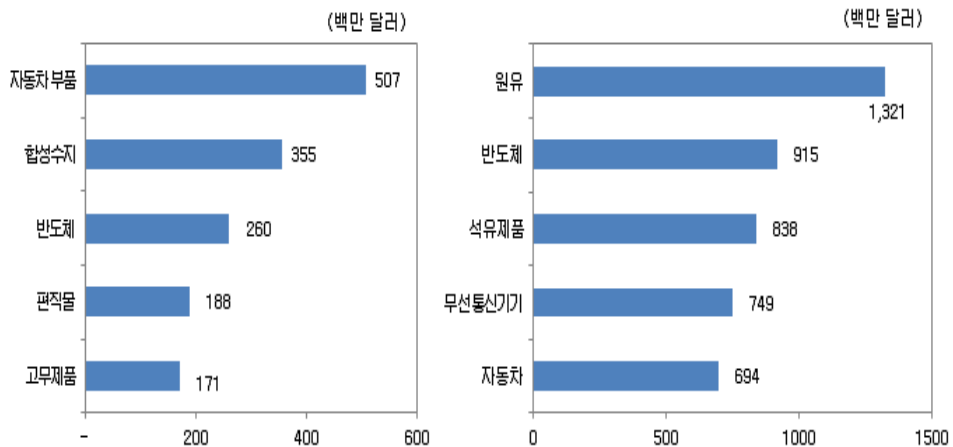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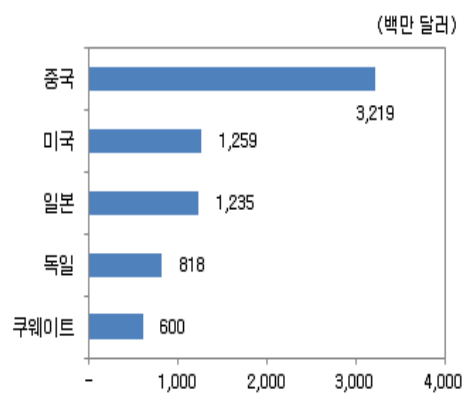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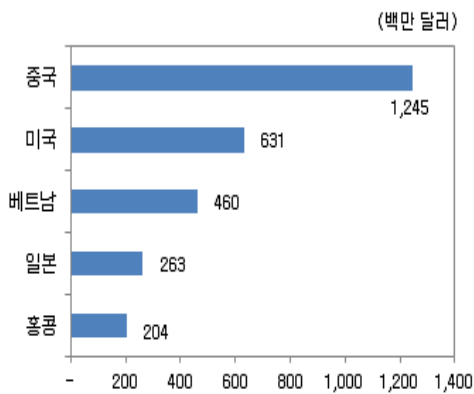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〈그림〉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1월 수출수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5% 감소한 1,24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일본, 홍콩 순
-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%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홍콩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5.6% 증가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4.5% 증가한 3,21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독일, 쿠웨이트 순
- 대 쿠웨이트 수입은 원유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.7% 높은 600백만 달러 기록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<그림>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| 자 · 료 · 출 · 처 |

경인지방통계청, 「2015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」
 경인지방통계청, 「2015년 1월 서울시 고용동향」
 경인지방통계청, 「2015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」
 경제통계시스템, 「<http://ecos.bok.or.kr>」
 농수산물유통공사, 「<http://www.garak.co.kr/youtong>」
 관세청, 「2015년 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」
 국민은행연구소, 「201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」
 부동산114, 「2015년 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」
 중소기업청, 「2015년 1월 중 신설법인 동향」
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, 「<http://stat2.smba.go.kr>」
 통계청, 「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」
 통계청, 「2015년 1월 고용동향」
 통계청, 「201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」
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「<http://kosis.kr>」
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「<http://stat.kita.net>」
 한국은행, 「2015년 1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」
 한국은행, 「2015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」
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「<http://ecos.bok.or.kr>」
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「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」